buddhanews.com

육신이 태어났으면 정신이 다시 태어나야 진짜 사람

☞25면에서 계속

음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문 : 얼마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 근근이 꾸려나가던 셋방살이도 힘든 지경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왜 이다지 힘든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님,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답 :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있는 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생기고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병이 났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의학적으로는 30%밖에 충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0%는 누가 보충합니까? 모두 각자 마음들이죠. 거기는 그런 약하다 힘 있다 이런 게 붙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없다 있다 그게 붙을 수가 있나요? 그런 도리를 넘어서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붙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하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근본 자기가 둘이 돼서 약한 게 따로 있고 약하지 않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다 넣고 한군데다 맡기고 한군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여지껏 살아오신 거 누가 살아오셨습니까? 본인이 살아오셨지 않아요? 아무리 고초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서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죠. 약하든 약하지 않든 말입니다.

잘살든 못살든 그래도 이 몸은 부지런하게 뛰고 있으니 다 먹고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해서 병이 들고 그러면 외려 식구들한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장본인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은 누굴까요, 자기 운전수죠. 그 운전수가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자기 차를 끌고 다니게끔 하는데, 기름을 조금 넣는 것도 거기요, 많이 넣는 것도 거기요, 가득 채운 것도 거기요, 또 기름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알아서, 모두가 운전수 알아서 할 탓이니 이 몸은 부지런하게 뛰되 속상하고 힘든 거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든 그 장본인에게 모두 맡겨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주인공 그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넣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놓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거든지 풀리지 않을 게 없고 자유스럽지 않을 게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지금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그대로 믿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외계생명체가 있는 것인지요?

문 : 외국의 어떤 유명배우가 '외계인 종교'의 열혈신자가 되거나 'UFO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곳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가족과 직장을 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는지, 진짜 외계생명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세계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는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지구를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발되지 못하면 아마 송두리째 다 뺏겨도 그런 줄도 모르고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호소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죠.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나마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도 우주적으로 봐서는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손가락 반쪽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를 해서 잘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 모든 게 주인공 한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 거기다 넣고 맡기고
> 거기서 나고 든다 하는 걸
>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 가지고도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6 · 25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기 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쭉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불이 퍽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우리 손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 하나,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요! 가선 이렇게 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 그렇게 해서 옮아 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뺄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가지곤 아니 됩니다. 이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예요,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 한마디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땅 속이나, 물 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나게 하고 말입니다, 차분한 사람을 괜히 그냥 신경질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 겁니다.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놈이니까.' 하고선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놈밖에 없어요. 그 한 놈도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놈도 한 놈이란 말을 못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평소에 이러한 마음 도리를 항상 새기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밝히는 데 매진하셔야 어떤 것이 와도 둘이 아닌 줄 알아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금을 잃어버려서 속상해요

문 : 스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차비를 하라고 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처님 전에 보시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절에 왔는데 보시함에 넣기도 전에 어디서 흘려버렸어요. 부처님한테 바로 보시해야겠다 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왜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답 : 이거 봐요. 그래도 댁은 그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으니까, 아무가 가져갔든 잊어버렸든 그런 걸 생각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생각지 말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갔든지 어디 빠트렸든지 간에 그것은 댁이 부처님 앞에 보시한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로 그건 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값어치는 또 돌아올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알았죠?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드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씨. 준 사람, 받은 사람, 갖다 흘려버렸던 사람, 진정코 밉지 않은 못난 마음, 그것도 나는 알아요. 그게 못난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신도들이 돈도 없는데 남한테 빌려 가지고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와요. 나는 알죠. 그 어려운 문제를 이자를 얻어서 가져왔다는 거를요. "이 이자로 인해 돈이 늘어 가니까 어려운 집에서는 갚기가 어려워. 이건 갖다가 그 돈을 도로 갚아. 내가 돈 생기면 천도해 드린다고 마음으로 주인공에 맡기고 그러고 살면 저절로 그런 돈이 생겨." 그러고 그 돈 갖다 갚으라고 도로 주죠. 내가 틀렸나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고통은 그 살아나가 본 사람이라야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우스운 얘기를 하면 모두들 웃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인생이 돌아가는 이 삶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좋은 것도 있고 언짢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살아나가려면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언짢으면 언짢은 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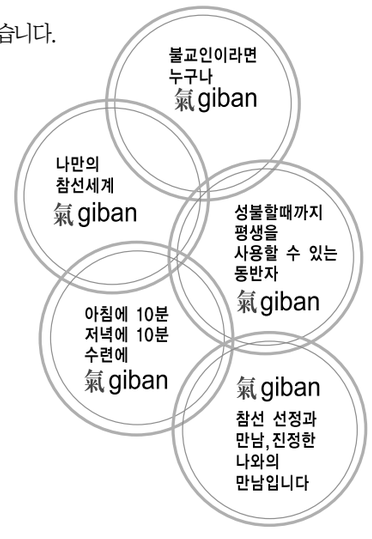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